

16 칼럼

캠퍼스의 ‘춘래불사춘’

안영훈

교수 · 국어국문학



춘래불사춘(春來不似春).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다. 당나라 시인의 시 구절이다. 일반적으로 봄이 와도 봄처럼 느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.

조선전기 시인 서거정(徐居正)은 봄날을 이렇게 노래했다. “금빛은 수양버들에 들고 옥은 매화를 떠나는데[金入垂楊玉謝梅] / 작은 연못에 새로운 물빛은 이끼보다 푸르구나[小池新水碧於苔] / 봄의 시름, 봄의 흥취 어느 것이 더 깊고 얇은가[春愁春興誰深淺] / 제비가 오지 않아서 꽃도 아직 피지 않았구나[燕子不來花未開].”

이 〈춘일(春日)〉은 서거정의 대표작이다. 한 시대 국가 문장을 좌우했던 그답게 화려한 수사가 눈에 띈다. 수양버들가지의 새잎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, 흰 매화 꽃잎이 옥빛으로 떨어지는 모습, 연못물이 파랗게 비치는 모습, 색조와 이미지가 영락없는 봄이다. 화사한 봄 정경 그대로다.

그런데 3구에서는 봄의 흥취와 봄의 시름을 함께 들고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. 4구로 이어보면, 봄이면 빠질 수 없는,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. 표면대로라면 시인은 제비도 오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아서 아직 봄 같지 않다고 아쉬워하는 것이다. 한편으로, 봄의 시름과 흥취를 나란히 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. 대상의 관계에 주목하면, 수양버들의 새싹과 떨어지는 매화, 연못의 새 물과 오래된 이끼는 각각 존재의 생성과 소멸, 신·구의 교체를 보여준다.

시인은 기실 과거와 현재가 교체하는 한순간을 포착한 것이며, 제비가 날아들고 꽃이 피는 봄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인 것이다. 꽃피는 봄날은 오겠지만 그 또한 시간이 흐르면 매화 꽃잎이 떨어지듯 소멸하는 과거가 될 뿐이다. 그래서 봄을 경험한 이들의 마음에는 늘 새롭게 생겨나는 것에 대한 흥취와 과거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름이 함께 놓일 수 있는 것이다.



시는 짧지만 인간세상의 희비고락(喜悲苦樂)과 멀지 않다.

(사진=대학주보 DB)

“

아직은 쌀쌀한 3월 캠퍼스에서
우리는 어떤 봄을 맞을 것인가.
다양성이 존중되는
캠퍼스의 봄을 맞이하고 싶다.
봄은 늘 새내기다.
새로워야 봄같은 봄이다.

”

꽃이 피어 절정에 달한 봄은 결국 꽃이 지며 소멸하는 길만 남겨 두게 되는데, 선조 때 송한필(宋翰弼)은 이런 봄을 더 짧게 묘사했다. “밤비에 피던 꽃이[花開昨夜雨] / 아침 바람에 지네[花落今朝風] / 가련타 한 해의 봄이[可憐一春事] / 비바람 속에 오고 가니[往來風雨中].” 시인이 우연히 읊조린다는 시(偶吟) 속의 한 꽃은 곧 한 봄이요, 봄은 또 한 생애이고 한 세상이다.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것, 봄이 오고가는 것이 범상한 일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.

고려 말 정몽주(鄭夢周) 또한 짧은 봄 시를 남겼다. “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[春雨細不滴] / 한 밤중엔 작은 소리 들려오네[夜中微有聲] / 눈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나면[雪盡南溪漲] / 초목의 싹도 다소 돋아나겠지[草芽多小生](〈춘흥(春興)〉).” 정몽주는 비 소리로 봄의 도래를 감지하였다. 가는 비[細雨], 작은 소리[微聲], 시냇물의 수위(水位), 초목의 싹은 어느 하나 쉽게 목측(目測)할 수 없는 대상들이다. 그러나 가는 봄비에도 시나브로 잔설은 녹게 마련이고, 그에 따라 불어난 시냇물은 사방으로 수

맥을 뻗어 겨우내 언 땅에 갈무리된 초목의 싹을 띄워 지표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던가. 눈 녹은 물이 새싹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은 곧 겨울이 봄을 잉태하고 있다는 말이다. 그런 점에서 계절의 교체와 순환은 상극이 아니고 상생이요, 그 기미는 은미하되 이치는 분명한 것이다. 이러한 섭리, 은미하되 그 속에 내포된 쉽 없는 변화의 항상성을 포착할 때 시적 감흥이 일게 된다. 변화가 은미할수록 그것을 깨닫는 내면의 흥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.

시는 짧지만 인간세상의 희비고락(喜悲苦樂)과 멀지 않다. 일찍이 이백(李白)은 옛사람들이 봄밤에 촛불을 잡고 논 것이 다 봄날이 짧을 까닭이요, 인생이 짧은 까닭이라 하였다(〈춘야연도리원서(春夜宴桃李園序)〉). 두보(杜甫)는 전란으로 객지를 떠돌다 맞은 봄날을 저 유명한 〈춘망(春望)〉에서, “나라가 망하니 산하만 남았고[國破山河在] / 성 안의 봄에는 초목만 우거졌구나[城春草木深] / 시절을 탄식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[感時花濺淚] / 이별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네[恨別

鳥驚心].”라고 토로하였다. 때로는 꽃이 피지 않아서 투정을 부리고, 때로는 꽃이 피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봄. 두보나 이백 같이 무수한 시인들이 인간이 경험한 봄날의 헛수만큼이나 많은 봄 시를 남겼다. 그럼에도 어김없이 봄은 다시 온다.

아직은 쌀쌀한 3월 캠퍼스에서 우리는 어떤 봄을 맞을 것인가. 경희의 봄은 목련과 함께 온다. 목련이 피고, 개나리, 진달래, 벚꽃이 만개하면 캠퍼스는 꽃 반 사람 반이 된다. 그 속에 사람이 꽃이 되고 꽃이 사람이 되는 장관이 펼쳐진다. 백화난만(百花爛漫). 온갖 꽃들이 이루는 조화가 봄 같은 봄을 만든다. 봄은 단색이 아니다. 새내기들의 입학식을 보며 그들을 인도하는 단과대의 다양한 색색 휘장이 봄 같은 봄의 시작임을 느낀다. 최근 화제가 된 영화 ‘서울의 봄’은 하나의 특정 집단이 여럿이 누릴 ‘봄’을 빼앗은 실화를 다룬 영화다. 그 결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. 일방의 의견이 강요되지 않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캠퍼스의 봄을 맞이하고 싶다. 봄은 늘 새내기다. 새로워야 봄 같은 봄이다.